

# 風流의 한 두 樣相

金 相 助\*

## 目 次

- |                    |                   |
|--------------------|-------------------|
| 1. 序論              | 3. 哲學的 思惟의 風流-嘗自然 |
| 2. 情緒發散의 風流-酒色과 歌舞 | 4. 結論             |

## 1. 序 論

風流는 우리의 정신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풍류는 술을 마시고 가무를 즐기며 노는 것을 지칭하면서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길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무언가 가치있는 것이 내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이 근래에 이르러 嘗自然이 또 하나의 풍류 양상으로 제시되자<sup>1)</sup> 풍류의 概念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다시 말하면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것과 상자연을 모두 풍류라고 하였을 때 너무나도 異質의 인 두 樣相을 풍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점은 만족할만한 성과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 풍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松江 鄭澈

\* 전임강사

1) 崔珍源,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史大系』 I,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

과 退溪 李滉의 경우를 통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강이 우리의 文學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거나와 퇴계도 지금까지 국문학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학자이면서도 비교적 시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자신의 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2천수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겨놓고 있는 주목을 요하는 시인이다.<sup>2)</sup>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의 古典文學史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두 시인을 통하여 풍류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풍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 점은 음주와 가무 양상의 풍류는 물론이고, 상자연의 풍류에 대해서도 崔珍源의 연구 성과를 잇는 작업이 없는 실정이다.<sup>3)</sup>

## 2. 情緒 發散의 風流—酒色과 歌舞

사전에 의하면 풍류는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는 바 이러한 풀이는 풍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풍류는 일종의 유희라는 점이다. 이 점은 흔히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것을 풍류라고 하는 것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그 유희는 세속적이지 않으며 일정한 품격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풍류가 우리의 문헌에 나타나기는 『三國史記』에서부터이며,<sup>4)</sup> 또 그 양상에 대해서도 삼국시대의 것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다.<sup>5)</sup> 그러나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조선에 와서였다. 즉 조선의 양반들은 가끔 풍류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구속에서부터 벗어나 酒色과 歌舞를 즐기고 破格的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무미전조하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

2) 李東歎, 「退溪의 詩에 對하여」, 『退溪學報』 19집, (退溪學研究院 1978).

3) 風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최진원의 위의 글과 丁益燮의 「羅代의 風流相」 『語文論集』 19·20합집, (高大 國語國文學 研究會 1977) 이외에는 보지 못하였다.

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37년조에서 花郎을 風流道라고 하고 있다.

5) 정익섭, 앞의 글.

하는 바가 주색과 가무를 즐기는 것 자체에 있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일상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매개물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억제된 情緒的 欲求를 發散시키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精神的 悅樂을 즐기곤 하였다. 이 정서적 욕구의 발산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신적 열락이 곧 풍류이다.

풍류는 다분히 귀족적이다.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양반들은 군주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거의 모든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얻어지는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바탕으로 가끔 일상적인 긴장을 벗어나 풍류를 즐겼었다. 더우기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에 따라 가중되는 긴장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 일시적으로나마 이 긴장에서 벗어날 필요성으로 풍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때로 세속적인 예의범절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까지도 묵인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체통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정도 이상의 품격이 필수적이었다. 말하자면 이 품격의 요구는 풍류가 풍류다울 수 있는 일종의 安全辨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풍류는 속되지 않아야 하지만 초현실적이 아니며,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였으나 탈예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적인 양상이 풍류와 흡사한 것으로 玩世不恭이 있는바, 흡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양상에 지나지 않으며, 現實的 禮法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풍류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송강의 시를 통하여 풍류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풍류는 주색과 가무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紅粧何必鏡湖間	홍장이 어찌 꼭 경호에만 있으리오
千載安詳此地還	천년전의 안상이 이 땅에 돌아왔네
不復扁舟勞遠望	멀리서 조각배만 바라볼 것 아니니
一宵同倚玉欄干	하룻밤 옥 난간에 함께 기대보세. <sup>6)</sup>

6) 「襄陽妓有紅粧者戲賦一絕」, 「松江全集」,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64, 영인본), p. 72. (이하 '전집'으로 줄임)

고려 시대에 朴信이 안렴사로 강릉 지방에 나갔다가 고을 기생 紅粧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sup>7)</sup>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이 시는 구구한 세속의 예의범절에 구애받지 않는 송강의 풍류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하룻밤 옥난간에 기대보세'와 같은 구절은 色情的인 느낌까지도 주고 있다.

그러나 송강의 풍류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들어나는 것은 음주시에서다. 오늘날 송강은 한 위대한 문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의 문집을 한번 쯤 통독해 보면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벼슬에 있었음이 쉽게 看取된다. 이것은 그가 벼슬을 '천하의 집'이라고까지 말하는 정도다.<sup>8)</sup> 당시 정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에 상응할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당쟁에서 그는 항상 반대파의 표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본의 아니게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술에 탐닉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좌절감이다.

宇宙殘生在	우주에 잔생만 남아 있어
江湖白髮多	강호에서 백발만 느는구나
明時休痛哭	밝은 때라 통곡도 못하고
醉後一長歌	취하여 길게 노래부르네.

遠岫頻晴雨	먼 산머리는 자주 개었다가 흐려지고
漁村乍有無	어촌은 잠간잠간 보였다 사라지네
孤舟一片月	외로운 배에 한조각 달이
萬里照平湖	넓디 넓은 호수를 비추는구나. <sup>9)</sup>

'밝은 때라 통곡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일종의 逆說이다. 그것은 밝은 때라고 하면서 통곡을 숨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끼고 있는 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억제된 통곡은 그가 벼슬 길에 나가지 못하고 강호에서 늙어가야 한

7) 이에 대해서는 『東人詩話』卷下 朴信條를 참고할 것.

8) 「李生廷冕 工詩嗜酒 溥於世味 病酒而歸 因自號爲歸 戲題古詩三十韻 投贈求和」 『전집』 p. 80, “歸賦天下宅”

9) 「平湖堂」 『전집』 p. 16.

다는 사실에서부터 발생하며, 취하여 부르는 긴 노래를 매개로 넓은 호수와 연결되고 있다. 이 호수는 잔생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습인 바, 통곡조차 억제당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과는 대조적으로 그야말로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심리와 외부의 세계가 극적으로 대두되면서 술에 취하여 노래 부르는 모습이 클로уз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경하게 치열하게 치달는 삶에 완충적 對極으로서의 그의 大醉不醒이 자리한다.’<sup>10)</sup>고 하는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壽逾知命位三公	나이는 知命이 넘고 벼슬도 삼공에 이르렀으니
雖死有勝八十翁	당장 죽어도 팔십 노인보다 낫겠지만
唯有人間未盡酒	다만 세상에서 술을 실컷 못마셨으니
數年加我願天同	몇년만 더 마시고 돌아갔으면. <sup>11)</sup>

송강은 자신의 술마시는 이유를 不平, 遇興, 待客, 難拒人勸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sup>12)</sup> 이 시에서 술마시고자 하는 이유는 굳이 찾자면 遇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흥이 나서가 아니라 정승에까지 오른 여유가 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흥이 송강 문학에 나타나는 풍류적인 면모로, 술과는 깊게 관련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관직에 있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여유를 갖지 못한다. 이점은 「星山別曲」과 「關東別曲」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산별곡」은 그가 강호에 있을 때의 노래다. 그는 가사의 전반에서 金成遠의 은거지를 묘사하고 있어서 ‘山翁의 이 富貴를 넘드려 현수마오/瓊瑤屈 隱世界를 좃출 이 이일세라’라고 노래하면서도, 일단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려지면 ‘엇디 흥 時運이 일락배락 흥 앓는고’ 또는 ‘人心이 늦긋특야 보도록 새롭거늘/世事는 구름이라 머호도 머 흘시고’라고 하여 怏怏不樂한 심회를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10) 金碩會, 鄭澈文學研究, (서울대大學院 1981), p. 57.

11) 「病中偶吟」 「전집」 p.68.

12) 「戒酒文」 「전집」 p. 34. 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 待客三也 難拒人勸四也……

「관동별곡」은 이와 달리 그가 觀察使로 나가 지은 노래다. 그는 江湖에 病이 깊다고 하면서도 관찰사에 제수되자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고 하면서 환희작약하여 달려가, 관동 지방의 勝景에 취하며 도도한 풍류를 즐기고 있다. 위의 「병중우음」도 이와 같다. 특히 절구에서, 數年加我 운운하는 것은 공자가 주역에 잠심하고자 하는 말을 인용하여 그의 술에 대한 갈망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3)</sup>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嗜酒癖은 그렇게 즐거운 것만이 아니었다.

동정이 무상하고 언어가 도리를 잃어버리며, 천가지의 邪心과 만가지의 妄念이 모두 술로부터 나온다. 한창 취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지르고는, 깨서는 아득히 깨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혹 말해주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 죽고 싶어진다.<sup>14)</sup>

그가 들고 있는 네가지의 음주 이유는 사실 어느 하나도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술 마시는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술로 인하여 얼마나 고민을 하였는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데서는 ‘술잔을 대하면 손을 멈추지 못하니’<sup>15)</sup> 또는 ‘술잔을 대하니 병든 눈이 밝아지네’<sup>16)</sup>라고 하여 맹목적인 갈망으로까지 변전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술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매개물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 되고, 다음과 같은 時調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그와 놀기까지에 이른다.

일이나 일우려 흥면 처엄의 사괴실가  
 보면 반기실시 나도 조차 든너더니  
 진실로 외다웃 호시면 마르신돌 엇더리

13) 『論語』「述而」편에 공자가 “加我數年 五十而學易 可以無大過矣”라 한 말이 있다. (인용자 加點)

14) 주 12)의 글, 動靜無常 言語失宜 千邪萬妄 皆從酒出 方其醉時 甘心行之 及其醒也 迷而不悟 人或言之 則初不信 然既得其實 則羞媿欲死.

15) 「夜坐遺懷」『전집』 p.20. “當杯莫停手”

16) 「珍島舟中奉呈霞翁求和」『전집』 p.19. “樽前病眠明”

내말 고디드려 너 업스면 못살려니  
 머흔 일 구준일 널로 호야 다 닛거든  
 이제야 눈 괴려 호고 멧 벗 말고 엇더리

### 3. 哲學的 思惟의 風流—嘗自然

우리는 앞에서 풍류가 일종의 유희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풍류가 이와 같이 파악되었을 때 지기에는 看過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에서 국가 官學으로 채택한 유학 특히 性理學은 完全한 人間 즉 聖人이 되는 것을 修道의 最高 目標로 삼았다. 모든 성리학적 윤리 덕목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정서적 욕구를 억제하고 不斷한 理性的 鍛鍊을 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모든 유희는 아무리 안전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 沒入의인 要素를 가진다. 주색과 가무는 이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풍류가 완전한 인간됨에의 지향이라고 하는 유학적 수양에 파괴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嘗自然의 풍류는 말하자면 이에 대한 對案的인 性格을 갖는다.

상자연이 유학자의 풍류임을 밝혀낸 이는 崔珍源이다. 그는 酒, 歌, 舞를 통하여 얻어지는 情緒의 發散이라고 하는 풍류가 非儒學的임을 밝혀내고 상자연이 유학자들의 풍류였음을 밝혀낸 것이다.<sup>17)</sup> 본고에서는 이에 힘입어 退溪의 경우를 통하여 상자연의 풍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자연은 자연을 玩賞하고 즐긴다는 것으로 퇴계의 陶山雜詠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陶山에 은거하여 살면서 周邊의 自然物과 陶山書堂의 구조물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 이것은 그의 관념 속에 구축된 具足한 자연의 모습 즉 도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에 可視的으로 구축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서 퇴계는 山林의 樂을 말한다.

17) 崔珍源, 앞의 글.

아,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서 태어나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없으면서도 산림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 알았다. 그러나 중년에 망령이 들어 세상 길에 나가 바람과 티끌이 뒤덮은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 뒤 나이는 더욱 늙고 병은 더욱 깊어지면서 처세는 더욱 곤란하여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으나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간의 속박을 벗어나 전원예 몸을 던지니 앞에서 말한 산림의 낙이 뜻밖에 내 앞에 닥쳤다.<sup>18)</sup>

퇴계는 산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世間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고 이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직의 상소를 올리고 고향에 은거하려 했던 사실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낙은 관념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육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의 회복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高趣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상자연의 풍류로, 일시적인 정서의 발산에서 얻어지는 찰라적이고 향락적인 해방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지하다시피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자연을 완전무결한 도의 顯然體로 본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됨을 추구하였던 유학자들에게 있어 자연은 일종의 典範的 성질을 갖는다. 여기에 유학자들의 자연 친화의 의미가 있다. 즉 自然에의 沒入을 통하여 物我一體 또는 物心一如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곧 完全體와의 一體一如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자연의 풍류는 주색과 가무의 풍류와는 다른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색과 가무적 풍류는 주색과 가무를 매개로 하여 정서적 욕구를 발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색과 가무는 이것 말고도

18) 「陶山雜詠并記」 「陶山全書」 권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영인본) p. 95. (이하 「全集」으로 줄임), 嗚呼 余之不幸 晩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 年益老 病益深 行益躓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다른 매개물이 있다면 대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자연의 풍류에서 자연은 대치가 불가능한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연을 통하여 낙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일체적인 정신적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形而上學的 法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퇴계의 시를 통하여 이와 같은 풍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清晨無一事	맑은 새벽에 할 일이 없어
披衣坐西軒	옷깃을 헤친 채 서쪽 뒷마루에 앉아 있으니
家童掃庭戶	사환 아이가 뜰을 쓸고는
寂寥還掩門	다시 고요히 사립문을 닫는다
細草生幽砌	보드라운 풀은 그윽한 섬돌에 나고
佳樹生芳園	아름다운 나무는 꽃같은 동산에 흠어져 있고
杏花雨前稀	살구꽃은 비 온 뒤라 드문데
桃花夜來繁	복숭아꽃 밤 사이에 한창 피었다.
紅櫻香雪飄	붉은 벚꽃은 향기로와 눈처럼 나부끼고
縞李銀海翻	하얀 오얏 꽃은 흰 바다처럼 구비치며
好鳥如自矜	고운 새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듯
間關唳朝喧	짹을 지어 아침을 지저킨다.
時光忽不留	빠른 세월은 잠시도 멈추지 않나니
幽懷悵難言	그윽한 회포는 쓸쓸하여 말하기조차 어렵네
三年京洛春	삼년 동안의 서울에서의 봄은
局促駒在轅	멍애 찬 망아지같았으니
悠悠竟何益	아득하여라, 무슨 이익이 있었던가
日夕愧國恩	아침 저녁으로 국은에 부끄러워라.
我家清洛上	우리 집은 맑은 낙동강 가
熙熙樂閑村	한가하게 태평세월 즐기는 곳.
隣里事東作	이웃들은 일하러 들에 나가고
鷄犬護籬垣	닭과 개만이 집을 지키리라.
圖書靜凡席	책을 쌓아 둔 고요한 책상머리
烟霞映川原	연화가 들에 가득하고

溪中魚與鳥	시내에는 고기와 새들이 놀며
松下鶴與猿	소나무 아래에는 학과 원숭이가 있으리라.
樂哉山中人	즐겁구나 산중의 사람들이여
言歸謀酒尊	나도 돌아가 술이나 마시리라. <sup>19)</sup>

꽤 긴 시이지만 전체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맨 처음 시인은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서울의 자연을 바라본다. 그 곳은 보드라운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짹을 지어 논다. 다시 말하여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얻어 化育이 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대단히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뜰을 쓰는 사환까지도 무심한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물러나고 나서야 애초의 질서를 되찾아 고요해진다. 이점은 시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무리 세속적인 예외를 벗어나 옷길을 헤친채로 있더라도 傍觀者 이상의 위치를 얻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자연과 시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괴리감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쓸쓸하여 말하기조차 어려운’ 회포의 정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속감과 부끄러움이다. 그는 이처럼 完備된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있을 곳으로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멍에 찬 망아지같은 구속감과 국은에 보답하지 못한 부끄러움의 회포만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思愴은 고향으로 달려간다.

그곳 고향도 얼핏 보아서는 서울의 자연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 그곳은 서울처럼 사립문 따위로 닫혀져 있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다. 아니 사환 아이 하나가 용납하지 못하였던 서울과는 달리 산중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연의 일부를 구성하고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시인이 회구하는 바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泉石膏肓을 노래하며 고향으로 돌아간다.

19) 「感春」『全集』 권1, pp.36~37.

花發巖崖春寂寂	꽃을 바위 언덕에 피고 봄은 고요한데
鳥鳴礪樹水潺潺	새는 냇가 나무에서 지저귀고 물은 잔잔히 흐른다.
偶從山後携童冠	우연히 아이들과 산뒤에서 노닐다가
閑到山前看考察	한가로이 산 앞에서 고반을 본다. <sup>20)</sup>

퇴계가 61세 때 도산서당에서 지은 시인데, 그의 제자 李德弘이, ‘沂水가에서 노는 즐거움이 있으니, 上下가 함께 흐르고 각자가 있을 곳을 얻은 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정도가 너무 지나친다고 하면서도 별로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言行錄에 전해진다.<sup>21)</sup> 꽃과 새와 물같은 자연물 그리고 봄기운까지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그저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의도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아이들과 함께 거닐다가 은거의 낙을 본다는 것이다. ‘自然과 人間의 事象들이 거의 完美하게 어울린, 和解의 極致를 포착하고 있다.’<sup>22)</sup>

상자연의 낙은 이러한 화해를 바탕으로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天末歸雲千萬峯	하늘 끝에 돌아가는 구름은 천 봉우린데
碧波青嶂夕陽紅	파란 물결 푸른 산에 석양이 붉다.
攜筇急向高臺上	서둘러 지팡이 잡고 높은 대에 올라가서
一笑開襟萬里風	한번 웃고 옷깃을 여니 만리 바람이 분다. <sup>23)</sup>

이 시에는 자연과의 일체를 이룬 회열감이 극적으로 고양되어 나타나 있다. 절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前景後志의 構成法에 따라서 앞의 두구에서는 풍경을 말하고 뒤의 두구에서는 시인의 회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0) 「步自溪上踰山至書堂」『全集』 권1, p.105.

21) 「言行錄」 권3, 「退溪全書」 권2,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영인본) p.679. 先生步出溪南齋 率李福弘 德弘等…… 又作一絕云……. 德弘問 “詩有沂上之樂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也” 先生曰 “雖略有此意思 推言之 太過高耳.”

22) 李東歎. 앞의 글.

23) 「夕霽登臺」『全集』 p.107.

도 이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를 이루기보다는 앞에서 遠景을 묘사하고, 뒤에서 이와 유사하게 탁 트인 심회를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주변의 풍경이 회포를 부각시켜 주기 위한 對物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인의 회포를 심화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이 보는 노을과 물과 산의 대조적 제시는 단순한 외부 경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리의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회포 즉 회열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열감이 앞의 시에서 살펴본 자연과의 화해를 통하여 획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哲學的 사유에 의한 자연과의 合一을 興感이라는 정서적 고양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sup>2)</sup> 상자연의 풍류의 본질이자 양상인 것이다.

#### 4. 結 論

본고는 우리의 정신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풍류에 관하여 그 개념과 양상을 송강과 퇴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주색과 가무를 매개로 하여 얻어지는 일반적인 풍류는 이들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 생활의 정서적 욕구를 발산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열락이다. 이것은 송강의 음주시를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의 관직에 대한 집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것이 성취될 때 그의 풍류적인 면모가 잘 나타나고 있다.

상자연의 풍류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하여 낙을 느끼는 것으로 퇴계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과의 합일을 통하여 그의 철학적 사유에 의한 자연과의 합일을 흥감이라는 정서적 고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고는 풍류의 양상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만 검토하고 말아버린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李東歎, 앞의 글.